**자아성찰 보고서**

세계시민교육과리더십(030)

강진옥 교수님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과학과

2016133

이유진

내 최초의 기억은 꽤 어린 편이다. 평균적으로 3.5세 이전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세 살 터울인 동생들이 없었을 때의 기억도 조각조각 있는 걸 보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기억을 한다는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첫 순간부터의 어린 나는 소심한 편이었다. 누군가가 말을 걸면 바로 심장이 빨리 뛰어 얼굴이 빨개지고 대답은 내 입 안에서만 맴돌곤 했다. 초등학교 때까지 담임선생님들께 특히 공통적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지만 예의 바르고 할 일을 야무지게 잘 한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과 조용히 어울렸다.

오히려 사춘기 즈음 되면서부터 점점 자신 있게 발표를 하거나 낯선 사람과 당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조장, 반장 역할을 도맡아 했고 흔히 말하는 ‘총대’를 메는 편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내향형인 성격은 바뀌지 않았지만, 용기를 낼 줄 알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서는 데에 자신감이 생겼다. '너의 자신감에는 이미 근거가 충분한데, 용기만 내면 되는 걸 못할 게 뭐가 있냐'는 선생님의 조언이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또, 활발한 외향형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어디선가 내향형과 외향형의 차이는 단지 사람을 만남으로써 힘을 얻는지 아닌지의 여부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서 리더십이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내향형인 성격이 꼭 단점으로 작용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충분히 극복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해내려고 노력했다. 그때 은사님의 조언은 내 삶의 반환점이었다.

하지만 또 그와는 별개로 나는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선호한다. 그 근거로 한 손으로는 셀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을 함께한 몇 명의 친구들을 들 수 있겠다. 어릴 때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또래의 우정 중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보이다가도 돌아서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뒷이야기를 하는 얄팍한 신뢰 관계였다. 그 때문에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혔고, 참 많이 싸웠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등지는 경험은 전혀 유쾌하지 않다. 괜찮은 척 아닌 척 거짓말을 하다 보니 나 자신도 그 거짓말에 잡아 먹혀 속았는지, 그냥 화가 났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처가 컸던 것 같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내 주위의 가벼운 관계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내 사람'이라는 바운더리를 나누는 벽이 높아졌고, 진짜 친구들만 곁에 남았다.

여기서 또 느낀 것이 있다. 나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라는 말을 내 생각보다 많이 믿는다는 것이다. 이 말 역시 예외는 존재할 수 있지만 예외가 예외인 이유는 그 수가 극히 적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깨진 유리잔을 완벽하게 붙일 순 없듯이 충돌이 있었던 관계는 완전히 예전처럼 돌이킬 수가 없었다. 화해보다는 그냥 인연을 끊는 길을 선택했던 것 같다.

굳이 적을 만들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었다. 다 지나고 보니 입시로 지쳤던 마음과 개인적인 우울이 많이 작용한 것 같기도 하다. 좋은 기억은 가슴에 담고 좋지 못했던 기억은 되새기며 반성할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잃기만 한 시간은 아닌 것 같다. 올해부터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게 되니 생활과 관계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다. 함께하고 싶었던 동아리에서 떨어지고, 코로나사태로 등교를 할 수 없어 이 환경을 아직 직접 접하진 못했지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강하다. 이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성격이다. 너무 단단하면 부러진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 이것도 전에는 무조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실 엄마와 나는 맞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다르다. 생활 패턴부터 사고방식까지 아예 다른 길을 걸어서 그런지 늘 엄마의 말씀에 반발심도 강했고 무작정 아니라는 생각부터 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내 생각을 꼬집는 반증이 되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막상 공동체에서 생활을 했을 때 내 고집을 관철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속으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지 언정 겉으로는 일부 양보하거나 설득시켜 최대한 타협점을 찾는 방향을 택했다. 많은 갈등에 지쳐 더 이상의 마찰은 원하지 않았던 속내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서로의 의견을 최대한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나는 재수를 했다.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좋아해서 이과를 선택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우울하고 무기력 해졌고,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포함한 많은 것을 놓아버렸다. 그냥 너무 지쳐서 하기가 싫었던 것일 수도 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손을 떠나니 더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에 빠졌던 것 같다.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말 중에 ‘구원은 셀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시기에 그 말이 진짜라는 걸 너무 절실하게 느꼈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유로 힘든 상황에서 내 앞가림 해줄 사람은 정말 나 자신밖에 없었다. ‘될 대로 대라’ 식의 사고는 나 자신에게 손해인 걸 알면서도 그냥 변화가 싫었던 것 같기도 하다. 재수 생활을 하면서는 오히려 힘들었던 사람과 공간에서부터 분리되고 새로운 동기와 의욕이 생겨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인 일 년이었다. 모든 불행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았던 때와 달리 모든 일의 원인이 ‘내 탓’이 되니 그로 인한 마음고생도 했지만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결과적으로는 입시에 미끄러졌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서 성장할 수 있었던 1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갈등 상황을 해결함에 있어서 남 탓을 하는 것은 절대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없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양보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는 원래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다. 정확히는 계획을 세우되 큰 틀만 잡아 두는 편이고, 세세한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짜지 않는다. 그렇게 계획하려고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계획이 너무 정교하면 오히려 쫓기는 기분에 불안하고 초조하다.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기분과 주변 환경 등의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어서 그런 것 같다. 계획을 세워도 그 때 그 순간에 잘 되는 일, 하고싶은 일을 하는 걸 좋아해서 유동적으로 계획을 바꾼다. 나와 성향이 좀 다른 친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행계획을 짤 때 나는 날짜 별로 갈 곳 정도만 정하는 반면 그 친구는 엑셀로 몇 시에 어디를 갈지 이동 시간까지 다 짜야 직성이 풀린다고 한다. 내가 나름 계획이라고 세운 것을 보면 그 친구는 이건 자신에게 있어서 계획의 축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나는 두 성향 모두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친구의 경우는 안정성이, 나의 경우는 유연성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적절히 잘 조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 그 친구의 대입이 끝나면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계획 짜는 것도 다르지만 여행 스타일도 달라서 어떻게 될지 여러 의미로 벌써 기대된다.

나는 기념일을 잘 챙기지 않는 편이다.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발렌타인 데이 등 다들 열심히 챙기는 기념일도 그다지 특별한 느낌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나는 생일이 연말이라, 하필이면 또 일 년의 마지막인 12월 31일이라 여태 생일날 친구를 만나서 거하게 파티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챙기지 못했다. 가족끼리 케이크 잘라먹고 배스킨라빈스 사이즈업 데이라 하프갤런 사이즈에 좋아하는 맛 가득 담아오는 정도의 감흥이다. 그런데 평소에 소소하게 챙기는 선물은 참 좋아한다. 선물이 꼭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받거나 주었기 때문보다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상대가 생각나서 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따뜻하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작은 선물을 받았을 때 잔잔한 기쁨이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이 참 감동적이다.

이 보고서를 쓰면서 지금까지의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냥 묻고 넘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된다는 것은 조금 늦었더라도 나를 또 다른 성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